**캐릭터**

**클로토**

운명의 세 여신 중 첫째 여신. 운명이 있음을 믿고, 그 운명이 자신의 열악한 상황을 타개해줄 것이라 믿는 인간들의 염원에 의해 태어난 신이다. 운명의 실을 짜는 일을 하는,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는 신이다.

클로토는 운명의 실을 짜서 인간의 운명을 창조하지만 한번 짜여진 운명의 실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신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그 규칙을 깨는 인간인 아디오스가 나타났다. 아디오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깨고, 인간이라는 한계를 넘어 신에게 도달해, 신들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며, 신 또한 넘으려 하고 있었다.

클로토는 인간이 아닌 신이 세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아트로포스의 뒤에, 이질적인 존재가 있음을 눈치채고, 아트로포스에게 협력하는 척하며 아트로포스의 뒤에 있는 이질적인 존재인 아디오스의 정체를 파악하려 한다.

아트로포스에게 직접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내고, 신의 사명을 지키려는 라케시스의 숨은 조력자이다.